

韓國과 中國의 漢醫가 臨床實際에서 쓰는 同名異種의 植物藥考

金 洙 哲*, 金 精 日**

*延邊農學院, **延邊長白山特產品經銷公司

Comments on the Homonym Plants in Chinese Clinic between Korea and China

Soo Cheol Kim* and Jeong Il Kim**

*Agricultural College of Yanbian, **Yanbian Changbai Mountain Speciality Selling Company

前 言

現代醫學의 理論, 技術 및 施設이 눈부시게 발전되면서 부터 古風이 창연한 漢醫, 漢藥이 時代의 멸시를 받게되었다. 高度로 비약한 近代의 産業,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하는 人口와 그의 生活이 自然을 파괴하고 生活空間을 엄청하게 오염하여 人命을 위협하니 인류는 自我矛盾을 反省하지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속에서 살면서 유기농법으로 지은 것을 먹고 병이들면 부작용의 근심이 없는 천연약물을 쓰는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러 因素로 연유되는 인류생태환경 오염이 인류에 대한 위해작용의 중요한 일면으로서 인체 세포의 癌化를 유인하는 要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東西醫를 막론하고 中後期에 들어서 惡性腫瘍에 대하여 症狀을 改善할뿐 根治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定論이다.

早期癌腫을 救急해줄 수 있는 手術, 射線, 化學治癌劑自體가 被施術者에 대한 후일의 發癌因素로 될 수 있다는 力說도 있다. 이 난국을 天然物 特別히 生藥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하고 思維指針의 防衛를 바꾸었다. 宇宙物質發展의 最高 寶座를 차지한 遺傳子의 메카니즘으로 생산된 生體와 그의 產物, 여기에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음을 再發見하였다.

古色이 창연한 漢醫漢藥이 自己를 멸시하는 現代人에게 준 啓蒙이다

古代의 文明한 韓人들은 太極, 陰陽五行說로 宇宙萬物의 根本을 說明하려는 東洋哲學思想을 確立

했으며 이 觀點에 立脚하여 人體의 구조, 生理, 病理, 診斷, 疾病의 放置, 醫藥에 대한 一系列의 理論을 전개하였고, 防病, 治病에 奇効가 많은 獨特한 醫術을 世界에 내놓았으며 病魔와의 투쟁하는 臨床실험속에서 許多한 漢藥種들을 篩選하였고, 漢醫의 特有한 藥物學——本草學을 창조하였다.

漢藥에 대한 一般理論과 더불어 365種의 漢藥을 漢醫學의 理論體系로 질서정연하게 論述한 神農本草經은 現存한 最古의 漢藥學經典으로서 戰國時期의 集體作으로 推測되는 黃帝內經, 秦越人作의 難經, 張仲景作의 傷寒雜病論(傷寒論과 金匱要略)과 더불어 漢醫의 四大經典으로 되고 있다. 梁代 陶弘景(456-536)의 神農本草集注는 730종의 약을 기록하였고 唐顯慶4年(659) 李勣, 蘇敬等이 지은 新修本草(唐本草)는 844종의 藥草와 插畫까지 갖추었기에 本草學의 획기적 巨作으로 인정되고 있다.

明代의 李時珍(1518~1593)이 27년동안 800餘家의 文籍을 參考하여 漢醫學, 漢藥學 一般理論과 더불어 1,892種의 藥草를 기재한 本草綱目(1596)은 世界的 藥學大典이다. 이 책에는 1,119種의 약초(식물 약749種)의 삽화가 들어있다.

中國의 近隣인 韓半島는 古代로 부터의 빈번한 文化交流과 더불어 漢醫學, 本草學과 漢藥들이 直接 輸入되었으며 그를 同化하여 東醫學, 鄉藥의 發展을 도모하였다. 李朝 世宗朝代에 有効通과 朴允德이 지은 鄉藥集成分(1433), 노중례등이 지은 醫方類聚(1477), 李朝 宣祖朝에 鄭敬先이 지은 醫林提要(1572), 許浚이 지은 東醫寶鑑(1610), 李朝

末葉에 李提馬가 지은 東醫壽世保元(1986년부터 3년동안 저술)등은 東醫의 代表作들이다.

鄉藥集成方에는 702종, 東醫寶鑑에는 1399종의 약이 수록되었으며, 藥鄉名이 첨부되어 있다. 藥材 중에 中國에 들어온 藥品과 한반도에서 生産된 鄉產品이 다른데 中國品을 唐白芷, 鄉産의 代用品을 土白芷라고 命名하였다. 唐藥自體에 同名異物이 있는데다가 鄉藥까지 보태여지니 同名異種藥 現象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同名異種의 藥이 藥効가 同一하거나 비슷할때는 問題가 없거나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人命如何에 관계되는 큰 문제까지 생길수도 있다. 漢藥의 同名異物 現象을 엄격히 관리하고 조사하며 연구하여 그의 眞僞를 밝혀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本文에서는 文獻, 民間의 用藥習慣, 市販藥의 情況에 根據하여 中國과 韓半島에서 同一한 植物藥名下에서 植物分類學的 起源이 다른 것을 쓰는 同名異種現象을 다만 植物分類學의 角度에서 試論을 展開할 뿐이다.

아래에 川芎, 藁本, 羌活, 前胡, 當歸, 獨活, 朮, 秦艽, 王不留行, 續斷, 白首烏, 沙參, 黃連, 赤芍, 白芍藥, 茵陳等の 同名異種現象을 分述한다. (註:本文中 藥名옆에 * 표시를 한 것은 本文作者의 新稱이다)

分 述

1. 川芎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Hortorum의 栽培中心地는 四川省一帶로서 川芎이라는 명칭 역시 四川에서 나는 芎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韓半島와 日本에서 栽培되고 있는 *Ligusticum officinale* Kitagawa(*Cnidium officinale* Makino, 東川芎, 日本川芎)를 刈米達夫等 日本學者들이 中國의 原産으로 보고있다.

L. officinale 사용이전에 韓半島에서는 土川芎을 이용하였다. 이 土川芎의 起源植物로서 궁궁이 *Angelica polymorpha* Maxim와 참고본*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을 들수 있다.

지금도 中國 延邊山地에서 土川芎으로 栽培되던 참고본이 野生狀態로 퍼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中國에서는 참고본을 藁本の 기원식물로서 이용하고 있다.

2. 藁本

고본(藁本)의 기원은 *Ligusticum sinense* Oliv.(藁本, 中國고본*)와 참고본(*L. jeholense* 遼藁本)의 根莖과 뿌리이다. 中國고본은 河南, 江西, 四川省一帶에서 야생하며 참고본은 中國 동북(흑룡강성, 요녕성), 河北, 山東省지역에서 야생한다.

韓半島에서 藁本으로 쓰이는 기원식물은 *Ligusticum tenuissimum* Kitag.(고본, 韓藁本*)이다.

3. 羌活

羌活은 *Notopterygium incisum* Ting(羌活, 中國강활*), *N. forbesii* Boiss(寬葉羌活, 넓은잎 中國강활*), *N. franchetii* Boiss(川羌活, 사천 中國강활*) 등 3종의 *Notopterygium*屬 植物에 기원된다.

*N. incisum*은 青海, 四川, 雲南, 甘肅, *N. forbesii*는 青海, 四川, 陝西, 河南, *N. franchetii*는 四川, 陝西, 甘肅 等 省의 高寒山地 灌木林中에서 野生한다.

韓羌活*의 起源植物은 *Ostericum koreanum* (Max.)Kitagawa(강활, 강호리)이다. 中國강활은 *Notopterygium*속이고 韓羌活은 *Ostericum*속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한 差異이다.

4. 前胡

중국전호*의 기원식물로서는 *Peucedanum praeruptorum* Dunn(白花前胡), *P. decursivum* (Miq.) Maxim.(紫花前胡, 바디나물)으로서 모두 山東, 安徽, 江蘇, 四川, 浙江, 廣西, 湖南, 湖北省의 地域에서 野生한다. 바디나물은 한국과 일본에서 自生하며 日本에서 이를 前胡로서 使用하였다.

牧野富太郎는 前胡의 기원은 바디나물이 아니고 *Angelica miqueliana* Maxim.(뫼미나리)에 유사한 植物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韓半島東醫들이 習慣적으로 使用하였던 前胡의 起源植物은 *Anthriscus aemula* Schisch(전호, 韓前胡*)이다. 中國四川省에서는 本植物의 뿌리를 峨參이라고 하여 莖좌상, 요통, 咳嗽, 咯血, 老人尿頻, 水腫, 四肢無力 等症에 쓴다.

5. 當歸

當歸의 기원식물은 *Angelica sinensis*(Oliv.) Diels (중국당귀*)로서 甘肅, 四川, 雲南, 陝西, 貴州, 湖北省 等 一帶의 冷涼濕潤한 高寒山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韓半島에서 쓰이는 당귀는 *Angelica gigas* Nakai (참당귀, 韓當歸*), *Angelica acutiloba* Kitagawa(日本當歸)에서 기원되며 *Ostericum grosserrata* Kitagawa(신감채)도 당귀로 이용되었다.

6. 獨活

中國과 日本에서 獨活로서 쓰는 植物은 *Angelica pubescens* Maxim.(毛當歸, シシウド)이다. 以外에도 中國에서는 *Angelica dahurica*(興安白止), *Angelica porphyrocaulis*(紫莖獨活), *Heracleum hemsleyanum*(牛尾獨活), *H. lanatum*(軟毛獨活), *Aralia cordata*(食用獨活 ウド). *A. atropurpurea*(濃紫龍眼獨活), *A. henryi*(九眼獨活)等 多種植物을 獨活로 쓰고 있는 形편이다. 上述한 獨活의 起源植物中에 오갈피科 *Aralia*屬 植物이 3種 있음은 注目할만 하다.

韓半島의 東醫들이 習慣의으로 獨活로 쓰는 起源植物은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독활, 韓獨活*)이다.

7. 朮(白朮과 蒼朮)

白朮의 起源植物은 중국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로서 根莖은 肥厚하고 柔軟하며 삼주의 늪은 根莖처럼 甚하게 硬化되지 않는다. 중국백출은 浙江, 湖南, 安徽, 江蘇省等에서 栽培되고 있으며 種子로서 번식된다. 중국백출은 根莖을 去皮하지 않고 말려서 쓴다. 火乾한 것을 烘朮, 陽乾한 것을 生晒朮 또는 冬朮이라고 한다.

中國에서 蒼朮의 起源植物로서는 南蒼朮 *A. lancea*(Thunb.)DC., 北蒼朮 *A. chinensis* Koidz 東蒼朮 *A. koreana* Nakai, 關蒼朮 *A. japonica* Koidz 等 중국백출 以外의 *Atractylodes*屬 植物들이 지적되고 있다. 韓半島에서는 삼주 *A. japonica*의 去皮한 肉質塊莖을 白朮, 木質化가 甚하게 늪은 皮경부분을 去皮하지않고 건조한 것을 蒼朮로 쓰고 있다.

8. 秦艽

진교(秦艽)의 起源植物로서는 용담과의 *Gentiana*속 植物중에서 굵은 直根을 갖고 있는 *G. macrophylla* Pall(大葉龍膽, 東北, 河北, 四川省等). *G. crassicaulis* Duthie(粗莖龍膽, 四川, 雲南省) *G. tibetica* King(西藏龍膽, 西藏, 四川省)等이다.

東醫들이 쓰는 秦교는 미나리아재비科에 속하는 *Aconitum pseudo-laeve* Nakai var. *electum* Nakai(진범, 망사초, 韓秦교*). *A. longecassidatum* Nakai(흰진범). *A. albo-violaceum* var. *purpurascens* Nakai(줄바꽃) 등 直根을 갖고 있는 것들로 起源이 된다.

9. 王不留行

王不留行의 起源으로서 中國은 *Vaccaria segetalis* Garcke(말뱅이나물, 麥藍草)의 種子를 韓半島에서는 *Melandrium firmum* Rohrb(장구채, 韓王不留行)의 全草를 지적함은 注目할바 있다.

10. 續斷

속단(續斷)의 原植物은 산토끼꽃과의 *Dipsacus asper* Wall(川續斷)과 *D. japonicus* Miq.(續斷, 산토끼꽃, ナベナ)이다. 前者는 四川, 湖北, 湖南, 雲南, 西藏 等 地域에서 自生하며 後者는 中國, 韓國, 日本에 分布하며 日本에서도 續斷의 起源植物로 利用된다.

東醫가 사용하는 續斷은 꿀풀科의 *Phlomis umbrosa* Turcz(속단, 韓續斷) 또는 *Ph. Koraiensis* Nakai(산속단)等 *Phlomis*속 植物을 기원으로 한다.

11. 白首烏(백하수오)

白首烏의 기원식물은 박주가리科의 *Cynanchum bungei* Decne(大根牛皮消)로서 山東省 泰山産이 有名하다. 韓半島産의 백하수오는 *Cynanchum wilfordi* Hemsl(큰조롱)의 塊根이다.

12. 沙參

中國에서는 사삼(沙參)을 南沙參과 北沙參의 두 가지로 나눈다. 南沙參의 起源植物은 미나리科의 갯방풍 *Glehnia littoralis* F. Schmidt(珊瑚菜)으로서 中國, 韓國, 日本, 러시아에 分布하고 있으며 韓半島와 日本에서는 防風의 代用品으로 쓰이기도 한다.

南沙蔘의 起源植物은 *Adenophora tetraphylla* (Thumb.) Fisch(충충잔대)를 爲主로 하는 *Adenophora*屬 植物들이다.

東醫들이 沙蔘으로 쓰는 起源植物은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Benth. et Hook(韓沙蔘*)으로 韓半島의 典型的 藥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中國에서는 더덕의 뿌리를 山海螺(本草綱目拾遺)라고 이르며 消腫, 解毒, 排膿, 祛痰, 催乳藥으로서 이용한다.

13. 黃連

황련(黃連)의 진품은 *Coptis chinensis* Franch(중국황련*)등 *Coptis*속 植物의 근경이다. 韓半島에는 *Coptis*속 植物의 自生이 없고 黃連의 唐材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藥으로서의 隔壁이플 *Jeffersonia dubia* Benth(韓黃連*)을 黃連으로 代用하였다.

14. 赤芍

중국의 적작약(赤芍)은 去皮하지 않고서 生乾한 *Paeonia lactiflora* Pall(작약), *P. obovata* Maxim.(산작약), *P. veitchii* Lynch(川赤芍)의 뿌리이다.

韓半島에서는 去皮하지 않고 生乾한 적작약의 뿌리를 적작약이라고 한다.

15. 白芍

중국백작*(白芍)의 기원식물은 *Paeonia lactiflora* Pall. var. *trichocarpa* Bunge(참작약)등 재배품종으로서 3-4年生의 肥大한 靑은 뿌리를 去皮(周皮의 제거)하고 끓는 물로 살짝 데쳐 말리면 白芍의 成 品으로 된다. 浙江省에서 나는 上品 白芍을 抗白芍, 安徽省에서 많이나는 白芍을 毫白芍, 四川省에서 나는 白芍을 川白芍이라고 이른다.

韓半島의 北部를 놓고 볼때 과거에 去皮하지 않고 生乾한 *P. obovata* Maxim.(산작약, 개삼)의 뿌리를 土白芍으로 이용하였다.

16. 茵陳蒿

중국의 茵陳은 *Artemisia capillaris* Thunb.(사철쭉) 또는 *A. scoparia* Waldst. et Kitaib.의 全草(키 10cm가량에 이른 春期의 全草)를 기원으로 한다.

近來에 와서는 韓半島에서도 花穗가 달린 사철쭉 枝葉 또는 開花前의 枝葉을 茵陳으로 한다. 藥으로서의 茵陳의 起源植物은 더위지기(*Artemisia iwayomogi* Kitamura, 생당쭉, 韓茵陳)이다.

本文의 要點

本文의 要點을 다음의 一覽表로서 要約한다.

同名異種 植物藥 一覽表

1994. 7. 9

藥名	來 原 植 物	
	中 國	韓 半 島
川 芍	<i>Ligusticum chuanxiong</i>	<i>L. officinale</i> <i>L. jehalense</i> <i>Angelica polymorpha</i>
藁 本	<i>Ligusticum sinense</i> <i>L. jeholense</i> <i>Notopterygium incisum</i>	<i>L. tenuissimum</i> <i>Ostericum Koreanum</i>
羌 活	<i>N. franchetii</i> <i>N. forbesii</i>	
前 胡	<i>Peucedanum praeruptorum</i> <i>P. decursivum</i>	<i>Anthriscus aemula</i>
當 歸	<i>Angelica sinensis</i>	<i>Angelica gigas</i> <i>A. acutiloba</i> <i>Ostericum grosserata</i>

藥名	來 原 植 物	
	中 國	韓 半 島
獨 活	<i>Angelica pubescens</i>	
	<i>A. dahurica</i>	
	<i>A. porphyrocaulis</i>	
	<i>Heracleum hemsleyanum</i>	<i>Aralia continentalis</i>
	<i>H. lanatum</i>	
	<i>Aralia cordata</i>	
	<i>A. atropurpurea</i>	
	<i>A. henryi</i>	
白 朮	<i>Atractylodes macrocephala</i>	
朮 蒼 朮	<i>Atractylodes chinensis</i>	<i>A. japonica</i>
	<i>A. koreana</i>	
	<i>A. japonica</i>	
秦 艽	<i>Gentiana macrophylla</i>	<i>Aconitum pseudo-laeve.</i>
	<i>G. crassicaulis</i>	<i>A. longecassidatum</i>
	<i>G. tibetica</i>	<i>A. albo-violaceum</i>
王不留行	<i>Vaccaria segetalis</i>	<i>Melandrium firmum</i>
續 斷	<i>Dipsacus asper</i>	<i>Phlomis umbrosa</i>
	<i>D. japonicus</i>	<i>Ph. Koraiensis</i>
白 首 烏	<i>Cynanchum bungei</i>	<i>C. wilfordi</i>
沙 北沙參	<i>Glehnia littoralis</i>	
	<i>Adenophora spp.</i>	<i>Codonopsis lanceolata</i>
參 南沙參		
黃 連	<i>Coptis chinensis</i>	<i>Jeffersonia dubia</i>
赤 芍	<i>Paeonia lactiflora</i> (野生)	<i>P. lactiflora</i> (野生)
	<i>P. obovata</i>	
	<i>P. veitchii</i>	
白 芍	<i>Paeonia lactiflora</i> (栽培品種)	<i>P. obovata</i>
茵 陳	<i>Artemisia capillaris</i>	<i>A. iwayomongi</i>
	<i>A. scoparia</i>	

參 考 文 獻

1. 印會河, 1984. 中醫基礎理論,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 凌一揆, 1984. 中藥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3. 韓大錫, 1991. 生藥學, 東明社.
4. 周榮漢, 1993. 中藥資源學, 中國醫藥科技出版社.
5. 中國醫學科學院藥用植物資源開發研究所, 1979. 中草藥栽培技術, 人民衛生出版社.
6. 中國醫學科學院 藥物研究所, 1979~1988. 中藥誌, 人民衛生出版社.
7. 中國科學院 植物研究所, 1961. 中國經濟植物誌(上,下), 科學出版社.
8. 全國中草藥 編編寫組, 1975~1978. 全國中草藥 編, 人民衛生出版社.
9. 南京藥學院, 1980~1987. 中草藥學(上,中,下), 江蘇人民出版社.
10. 江蘇新醫學院, 1977. 中蘇大辭典(上,中,下), 上海人民出版社.

11. 李相來等, 1989. 韓國에 自生하는 抗癌植物開發에 關한 基礎的研究, 東洋資源植物學會誌 2 : 1~214.
12. 李時珍, 1982.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3. 許浚, 1971. 東醫寶鑑(國譯本), 豐年社.
14. 문관심, 1984. 약초의 성분과 이용.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5. 차진현, 1984. 실용동약학,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6. 刈米達夫, 1971. 和漢生藥, 廣川書店.
17. 李昌福, 1979. 大韓植物圖鑑, 響文社.
18. 周海鈞等, 1984. 中國民族藥誌(第一卷), 人民衛生出版社.
19. 大井次三郎, 1952. 日本植物誌, 至文堂.
20. 中華人民共和國藥典委員會, 1985. 中華人民共和國藥典, 人民衛生出版社.
21. 中國科學院植物研究所, 1972~1976. 中國高等植物圖鑑(1~5), 科學出版社.
22. 白井光太郎, 1985. 本草學, 東京科學書院.
23. 朱有昌, 1992. 東北藥用植物, 瀋龍江科學技術出版社.
24. 歐明, 1992. 漢英常用中藥手冊, 廣東科技出版社.
25. Kitagawa M, 1939. Lineamenta Florae Manchuricae.